



물가는 안정, 남은 이번주 추가 지표 둔화 기대

미국 증시는 CPI 발표가 시장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S&P500과 NASDAQ 중심의 상승. 미국채 10년 금리는 장중 전고점 부근인 4.32%를 상회하기도 했는데, 물가 발표 이후 추세 안정. 여기에는 양호한 장기채 입찰 결과도 있었음. 미국채 30년물 입찰 결과 응찰률은 2.46배로 최근 6개월 평균(2.44배) 대비 양호. 미국 10년 금리는 전일대비 3bp 하락한 4.25% 마감

미국 8월 CPI는 전월대비 +0.6%, 전월보다 상승폭 확대. 다만 이는 예상되었던 부분. 컨센 하회했던 7월에 유가 상승분을 에너지 CPI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8월 에너지 물가에 반영, 전월대비 5.6% 상승하며 헤드라인 상승폭을 키움. 코어 물가는 안정. 특히 주거 서비스 물가가 연초만 하더라도 0.6~0.8%의 상승폭이 나타났었는데, 8월엔 전월비 0.3% 상승하는데 그침(vs 7월 0.4%). 운송서비스 물가만 나홀로 상승폭 확대, 다만 이를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물가압력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차별적으로 집중된 여행 및 이동 수요에 기인한다는 판단. Trimmed mean, Median CPI 등으로 확인되는 기초적 물가 상승 압력은 추세 하락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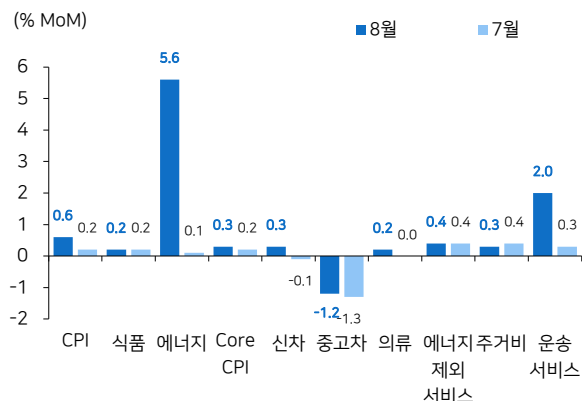
남은 이번주 동안 매크로 지표 둔화 확인에 따른 경기 눈높이 및 금리 안정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 오늘밤 소매판매 발표 예정, 컨센서스는 +0.1% MoM으로 전월(+0.7%)대비 상승폭 둔화. 또 금요일 밤에는 소비심리지표 발표 예정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층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음. AARP(미국은퇴자협회) 재단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자금 대출자 중 20%는 50세 이상, 미상환 부채의 25%인 4,110억 달러의 부채가 있음. 연방 빈곤 수준이 250% 이하, 최소 1,000달러 이상 학자금 대출 부채가 있는 50세 이상 성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는 현재 재정 상황 고려시 지급 재개에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

Fed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평균 납입액은 393달러. 평균 사회보장 퇴직급여는 월 1,543달러이며 전체 노인의 25%는 사회보장 급여가 월 소득의 90%를 차지. AARP 재단은 여기에 대출자 13명 중 1명 이상이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COVID 이전보다 더 높은 다른 지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학자금 대출 연체의 위험 요소라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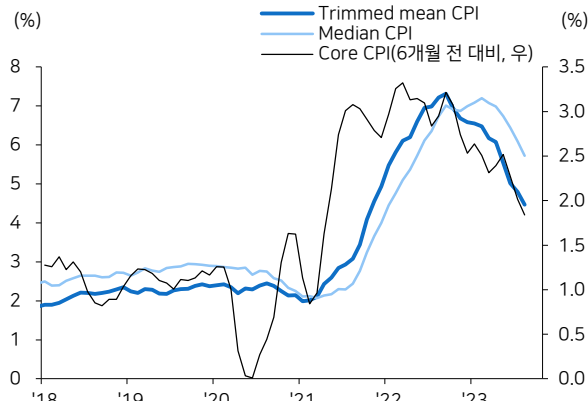
애플의 중국 수요 불확실성이 조명되는 가운데, 어제 중국 당국 입장 발표. FT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애플을 포함한 외국 브랜드 휴대폰 구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등을 문서화 하여 제정하지 않았으며, 네트워크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밝힘. 다만 최근 아이폰 관련 보안 사고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했던 적이 있다며 경계감 드러냄

그림1 7월, 8월 CPI 항목별 전월대비 변동률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추세 하락하는 기초적 물가 압력



자료: Cleveland Fed,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